

『쓰레즈레구사』(徒然草)에 보이는 겐코(兼好)의 현실인식

엄인경*

차 례

- I. 들어가며
- II. 본 론
 - 1. 작품의 성립과 겐코의 주변상황
 - 2. 겐코의 과거와 현재인식
 - 3. 새 시대에 대한 겐코의 인식
- III. 맺으며

I. 들어가며

『쓰레즈레구사』(徒然草)가 대중성을 얻으며 고전으로서 출판계에 폭발적으로 환영받은 것은 에도(江戶)시대가 되어서의 일이다. 고전작품의 캐논(Canon)¹⁾화, 즉 정전(正典)화에 관한 최근 논의의 맥락에서 보면 『쓰레즈레구사』(徒然草)는 근세에 들어서면서 캐논화가 이루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쓰여진 하야시라잔(林羅山)의 『노즈치』(野槌, 1621년)나 마쓰나가 데이토쿠(松永貞徳)의 『나구사미구사』(なぐさみ草, 1652년), 기타무라 기긴(北村季吟)의 『쓰레즈레구사문단쇼』(徒然草文段抄, 1668년) 등을 비롯한 근세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쓰인 각종 고주석서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요컨대 『쓰레즈레구사』는 에도(江戶)기에 가장 널리 출판된 일본의 고전이 되며 「일본의 『논어』(論語)」라는 지위를 확립²⁾하게 되었다.

근세 이후의 이런 고주석서들의 대거 등장은 『쓰레즈레구사』의 해석과 이해에 있어 기여한 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작품해석이 어느 정도 교훈서나 은자문학(隱者文學)으로 고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은 되짚어볼 문제점을 내포한다.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이러한 해석경향은 근세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림자를 크게 드리우며, 『쓰레즈레구사』 연구사, 혹은 향수사에서 가장 큰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쓰레즈레구사』는 서단(序段)을 비롯하여 243개의 단이 각각 독립된 내용을 갖기에 범 사답게 은둔을 중용하거나 주제를 인생무상으로 이끄는 듯한 단도 물론 있고, 교훈서적인 면모 역시 일부 보인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쓰레즈레구사』를 무상관의 문학이라고 보는 의견이나 처세의 지침서로 보는 의견은 모두 작품의 어느 일면만을 파악한 것으로 작품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듯하다. 그 밖에도 이 작품에는 겐코(兼好)의 유직고실가(有職故實家)로서의 견해 등에서 나온 유직고실(有職故實)³⁾에 관한 전체의 5분의 1정도에 상당하는 많은 단(段)들,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설화적인 단들 및 주변에서 전해들은 이야기, 친분 있던 사람들에 관한 일화 등 그 동안 연구사에 있어 연결 고리를 갖지 못해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간과되던 이야기들도 또한 엄연히 생동감을 띠며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겐코는 가미쿠라(鎌倉)말기에서 남북조(南北朝)시대를 걸치는 큰 변동의 시기를 살던 한 문학자였다. 그럼에도 막부(幕府)의 붕괴와 제(諸)세력간의 정쟁으로 인한 많은 사건들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기에 『쓰레즈레구사』가 언제 성립된 것인가부터 겐코의 생활 영역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정설 없이 연구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이하 본고에서는 그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겐코가 실생활을 영위하던 시기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쓰레즈레구사』의 성립시기를 간단히 고찰하기로 한다. 그리고 겐코에 관해서는 생애 전체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하지만, 『다이헤이키』(太平記)나 『엔타이라쿠』(園大曆)⁴⁾ 등에 단편적으로 보이는 겐코상(像)을 짚어봄으로써 겐코의 실생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겐코가 자신이 살던 시대, 즉 현실을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비판하였는지, 또한 흔히 상고취향(尙古趣向)이라 일컬어지는 작자의 과거동경경향이 현실과의 조응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겐코가 현실 속의 많은 정변과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못한 이유와 그의 현세인식을 상고취향과 결부시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단순기사로만 치부되거나 표면적 의미만 강조되어 향수된 단들도 가미쿠라 말기라는 겐코의 현실에 비추어 새롭게 조명해 봄으로써 『쓰레즈레구사』의 이해와 시대상과의 관련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의 작은 지평을 열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성립과 겐코의 주변상황

(1) 작품의 성립시기

다치바나 준이치(橋純一)씨는 겐토쿠(元徳)2년(1330)부터 겐코(元弘)원년(1331)이라는 1년간, 즉 겐코가 48, 9세 때 『쓰레즈레구사』를 썼다고 논증하고 있다.⁵⁾ 그의 설은 요컨대 겐코(元弘)의 난⁶⁾을 비롯한 당시의 여러 동란에 의한 변화 및 사회상이 작품에 전혀 직접 언급되지 않은 점과 등장인물의 계급호칭 등을 근거로, 『쓰레즈레구사』의 집필은 이 1년 중 일정 시기 내에 단숨에 쓰여졌다는 것이다.

이후 야스라오카 고사쿠(安良岡康作)씨에 의해 이 단기집필설에 수정이 가해졌다. 야스라오카씨는 성립시기가 두 시기로 나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서단부터 32단을 겐코(兼好) 37세로 추정되는 겐오(元應)원년(1319)에 쓰여진 것으로, 그리고 그 이하는 11년 정도의 간격을 둔 후에 쓰여졌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야스라오카씨도 동란의 현실이 거의 묘사되지 않았다는 다치바나씨의 지적을 여전히 영향력있게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⁷⁾, 이 간격기를 경계로 작품으로서의 전개와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실증을 제시했다. 겐코(兼好)가 가진 사상의 변화를 지적하여 집필기간에 큰 공백기가 있었다고 보는 야스라오카씨의 설은 『쓰레즈레구사』 내의 모순되는 내용들이 생기게 된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나가쓰미 야스아키(永積安明)씨는 이 다치바나씨의 단기집필설을 부정하여, 정확히 몇 년의 간격을 두고 저작되었다기보다는 작품 전체에 걸쳐서 내용상에서 드러나는 작자의 사상적 변화와 성장, 심화를 근거로 한 장기집필설을 주장한다.⁸⁾ 즉 겐코의 인간사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쇼쥬(正中)의 변(變)⁹⁾, 겐코(元弘)의 난을 비롯한 어지러운 동란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획득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집필시기와 관련된 다른 설에는 마쓰모토 신하치로(松本新八郎)씨의 의견도 있는데, 30단 부근과 150단 부근에 집필의 공백기가 있다는 3부 집필설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야우치 소지로(宮内三二郎)씨의 경우는 최종 집필시기를 쇼와(貞和)년간 즉 1345년에서 1350년경까지로 늦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쓰레즈레구사』의 집필시기가 이런 이론들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겐코가 동란의 와중

에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그 동란들을 직접적으로 그려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앞서 말한 천황의 막부(幕府)타도라는 대사건인 『겐코(元弘)의 난』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난 이전에 이미 겐코가 『쓰레즈레구사』 저술을 끝냈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152단과 153단, 154단에서 연이어 실명으로 등장하는 히노 스케토모(日野資朝)¹⁰⁾라는 인물에 관한 기사는 작품이 쓰인 때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추정하는데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동란 자체를 『쓰레즈레구사』 작품 내에서 직접적으로 서술하지는 않고 있지만, 겐코가 당시 정치적 입장 때문에 비극적 죽음을 당한 인물에 대해 동조적으로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152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스케토모(資朝)경이 이를 보고 「늙은 것 뿐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이후 어느 날 (스케토모는) 털복숭이의 개가 불품 없이 노쇠하여 털도 벗겨진 것을 끌고 오게 하여 「이 (개의) 모습이 존귀하게 보입니다」라고 하며 사네히라(實衡) 내대신(内大臣)에게 바치셨다고 한다.

(資朝卿、是を見て、「年の寄りたるに候」と申されけり。

後日に、むく犬の、あさましく老ひさらばひて毛はげたるを引かせて、「此氣色尊く見えて候」とて、内府へまいらせられたりける。) <152단>¹¹⁾

여기에는 허리가 굽고 눈썹이 흰 조년상인(靜然上人)의 덕 있어 보이는 외모에 존경과 신앙을 느낀 후지와라노 사네히라(藤原實衡)를 향해서, 스케토모가 이런 행동을 취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단순한 기행이라기에는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느낌마저 준다. 이어지는 제153단에서는 체포되어 연행당하는 후지와라노 다메카네(藤原爲兼)를 보고 스케토모가 그 신세를 오히려 「부럽다(あな羨まし)」고 말한 일화가 적혀 있다. 그리고 제154단에서는, 스케토모가 비를 피하다가 그곳에 모여 있는 불구자들을 보고 처음에는 「실로 애호할 가치가 있다(もとも愛するに足れり)」고 신기하게 여겨 쳐다보다가 이윽고 흥미를 잃게 되면서 불쾌감을 느끼고,

집에 돌아온 후에 그동안 화분에 심은 나무를 좋아하여 이상한 모양으로 굽어있는 것을 골라 눈을 기쁘게 했던 것은, 그 불구자들을 애호한 것과 같은 것이었구나 하고 (돌연 흥

미가 없게 느껴져서 화분에 심겨져 있던 나무들을 전부 태워버렸다고 한다.

([歸て]のち、この間、植ゑ木を好みて、異様に曲折あるを求めて目を悦ばしめつるは、かのかたはを愛するなりけれど、興なく覺えければ、鉢に植ゑられける木ども、皆焼き捨てられにけり。) <154단>¹²⁾

는 행동을 취한 얘기가 적혀 있다. 세 단 모두 상식적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과도한 면을 가진 스케토모의 행동을 적고 있다.

스케토모는 고다이로 천황의 측근으로서 호쥬(北條)씨 타도에 가담했던 인물이다. 1324년 거사계획이 발각되어 사도(佐渡)에 유배된 후, 겐코(元弘)의 난이 일어나자 겐코(元弘)2년(1332), 즉 43세의 나이로 죽음을 당한다. 이 인물을 다룬 겐코의 태도는 154단의 「정말로 그럴만한 일이다(さも有ぬべきことなり)」라는 감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감과 동조로 드러난다. 스케토모처럼 당시 동란의 와중에 있던 인물에게 세 단이나 할애하면서 그의 기행에 대해 찬동 및 동감을 표한다는 것은 각별한 감정을 갖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처럼 각별히 생각하던 스케토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겐코가 자신의 정치적 찬동의 뜻도 곁해서 이처럼 연속적인 일화(逸話)를 썼을 것이라고 추측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152단 이후는 스케토모의 죽음 이후 즉 1332년 이후에 집필했다고 보는 설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쓰레즈레구사』가 한 번의 공백기를 두었는지 두 번의 공백기를 두었는지, 혹은 언제 쓰여서 언제 유포되었는지 등의 문제에는 논의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집필시기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중 어떤 논을 따르든, 그리고 집필에서의 공백기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든 간에 그 시기의 폭은 가마쿠라막부가 막을 내리고 남북조시대가 시작, 전개되는 상황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겐코가 『쓰레즈레구사』를 집필하던 때는 정치적으로 남북조의 내란상황이 어지럽게 펼쳐지고, 사회적으로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많은 말들이 오가며, 무(武)가 기세를 얻고, 경제적으로는 사치와 배금주의가 팽배해가던 시기, 그 와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다이헤이키』(太平記)의 기사를 통해 본 겐코의 실상

겐코가 살던 시기를 ‘다이헤이키(太平記)의 시대’라고 한다. 『다이헤이키』에 겐코가 등장할뿐더러 겐코가 『다이헤이키』의 혼란시대를 고스란히 겪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이헤이키』 권(卷)제21에 겐코는 「겐코라는 능서가를 불러들여(兼好と云ひける能書の人を呼び寄せて)」¹³⁾라는 서술로 등장한다. 당시의 실권자인 고노 모로나오(高師直)¹⁴⁾의 연애편지를 대필하기 위해서였지만, 상대방 여인은 그 편지를 펴보지도 않게 되어 결국 실패하게 된다. 이에 모로나오는 「세상 쓸모 없는 것이 글 써주는 자로구나. 오늘부터 그 겐코법사는 여기 들게 해서 안 될 것이다(物の用に立たぬ物は手書きなりけり。今日よりして、その兼好法師、これへ經廻らすべからず)」라며 분노한다. 그 후 “겐코는 뛰어난 능서가, 가인이었지만 그 보람도 없이 체면을 잃게 되었다(兼好はさしもの能書、歌讀みなりしかども、その詮なくて、面目をぞ失ひける。)”라는 표현대로 체면이 말이 아닌 채 「겐코의 불운과 긴요시(公善)의 행운, 그 영고의 입장이 한 순간에 바뀌는 별난 일이었다(兼好が不祥、公善が好運、榮枯一時に地を替へて、不思議なりし事もなり。)」라는 기술에 의해 퇴장하게 된다. 『다이헤이키』의 작자나 독자를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해 겐코가 권세가 주변에서 맴돌다 결국 쫓겨나게 되는 불운아, 즉 연민과 조소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처럼 권력을 지닌 자에 의해 그 불운(不祥)과 행운(高運)은 순식간에 바뀌는 「별난(不思議)」 일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 동란의 시대에는 일상 다반사였을 것이다.

겐코는 당시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노 모로나오에게 이 사건으로 한 때 노여움을 사긴 하지만, 『엔타이라쿠』(園太曆)의 조와(貞和)4년(1349) 기록에서 알 수 있듯 그 후 다시 오랜 시간에 걸쳐 유직고실(有職故實)의 전문가로서 모로나오와 교섭을 지속했다¹⁵⁾고 한다.

인물에 관한 기록이 거의 잔존하지 않기에 겐코에 관해 알려진 바가 극히 적지만, 실력자에게 유직고실에 관해 충고해주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도 겐코가 보고 듣고 느낀 일이 방대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위의 『다이헤이키』나 『엔타이라쿠』의 서술이 『쓰레즈레구사』가 집필된 시기보다 다소 늦을 가능성도 있으나 능서가로서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유직고실에 해박하다는 평판은 이미 얻은 상태였기에 모로나오라는 당대 최고의 실권자에게 접근해 있을 수 있었음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겐코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들간의 몸부림, 다툼 하나하나가 혼란한 사회 속에 어떤 파장

을 주며 확대되고 퍼져나갔는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남북조리는 시대 속에서 살던 겐코의 날카로운 비평안이 왜 정사(政事)와 정치적 주인공들에게는 작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점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해 『쓰레즈레구사』라는 작품 내용에 전란의 세상이 『다이헤이키』(太平記)처럼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겐코의 시점이 『마스카가미』(増鏡)와 같은 와분(和文)을 창출한 귀족들의 시점과 중첩되었기 때문¹⁶⁾이라는 나가쓰미(永積)씨의 의견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이헤이키』처럼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그에 얽힌 역사적 인물들을 주인공 통해 직접 서사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마스카가미』의 표현처럼 간접적, 우회적으로 시대를 다루려 했던 겐코의 의도를 짚어낸 의견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보수적 전통을 잇는 주목받는 가인이자 문학적, 문화적 소양을 갖춘 겐코가 창점이 난무하는 현실을 표현하는 방식이란, 군기물(軍記物)보다는 역사모노가타리(歴史物語) 쪽에 가까운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다시 말해 겐코는 어지러운 현실로부터 철저한 은둔과 같은 형태로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자와 가까운 자신의 입장 때문에, 그리고 귀족적 시점의 전통을 잇는 입장 때문에 일부러 언급을 회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2. 겐코의 과거와 현재인식

위에서 살펴보았듯 겐코의 현실을 변동의 와중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쓰레즈레구사』에는 이런 현실의 사건보다 상고취향(尙古趣向), 흔히 왕조취미(王朝趣味)라 일컬어지는 겐코의 성향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겐코가 왕조시대를 동경했던 고상한 취미의 가인(歌人)이었다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부분이다. 그런데 『쓰레즈레구사』에 드러난 시대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겐코의 상고취향, 왕조취미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겐코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데 그의 고대인식, 즉 옛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란이나 정치변란에 대해 한 마디도 비판이나 동조의 언사를 보이지 않는 겐코에게 있어 겐코의 과거에 대한 동경은, 현재와의 대비라는 측면에서 더욱 확연해진다는 점도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우선 14단을 보면,

요즘의 와카(和歌)는 일부분이 재미있게 잘 표현되었다고 보이는 것은 있어도, 옛 와카 들처럼, 어찌된 셈인지 언외(言外)로 깊이 감동을 주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없다.

この頃の歌は、ひとふしおかしく言ひ叶ひたりと見ゆるはあれど、古き歌どものやうに、いかにぞや、言葉のほかにあはれにけしき覺ゆるはなし。¹⁷⁾

고 말하여 「요즘 와카(この頃の歌)」가 「옛날 와카(古き歌)」에 비해 「정취(あはれ)」가 없다는 비판을 하며 옛 와카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남북조시대의 와카사천왕(和歌四天王) 중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던 겐코가 보수적 니쥬(二條)파의 맥을 잇는 가인으로서 와카에 대해 발언한 점에서 중시되던 단이다. 이어서 같은 단에서

「와카의 길만은 옛날과 다름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과연 어떻게? 지금도 사람들이 읊는 같은 단어, 우타마쿠라(歌枕)¹⁸⁾라도 옛날 사람들이 읊던 것은 전혀 (지금과) 같은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평이하고 솔직하며 모습도 깔끔하며 정취도 깊어 보인다.

료진히쇼(梁塵秘抄)¹⁹⁾에 실린 가요의 말들도 또한 정취 있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옛날 사람(이 한 말)이라면 그저 어떻게 내뱉은 듯한 말들이라도 모두 멋지게 들리는 건가.

「歌の道のみ、いにしへに變らぬ」など言ふこともあれど、いさや。今も詠みあへる同じ言葉、歌枕を、昔の人の詠めるは、さらに同じ物にあらず。やすくすなほにして、姿も清げに、あはれも深く見ゆ。

梁塵秘抄の那曲の言葉こそ、又あはれなることは多かめれ。

昔の人は、ただいかに言ひ捨てたることぐさも、皆いみじく聞ゆるにや。²⁰⁾

라며 니쥬(二條)파의 가인답게 평이하고 담백한 옛날 와카가 지금에 비해 「정취(あはれ)」있다는 노골적이고 보수적인 상고(尙古)취향을 드러내고 있다. 와카에 대한 평가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옛날은 「古し」, 「いにしへ」, 「昔」 등의 표현으로, 그리고 지금은 「この頃」, 「今」라는 말로 표현되고 내용상은 대비를 보이며, 옛것과 옛사람이 지금과 현재사람들보다 「정취(あはれ)」가 있다는 식의 묘사로 일관되어 있다.

와카에서 확대되어 이런 취향은 22단에서 더욱 현저하게 「모든 것(何事)」으로 까지 확대되어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뛰든 옛날이 그렇다. 현재는 심하게 찬박해져 가는 것 같다.

저 목공 명인이 만든 [예쁜] 용기도 옛 시대 것의 모양이 정취 있게 보인다.

편지의 [말같은 것도 옛날 종이 것이 멋지다. 그냥 하는] 말도 (현대가 되면서) 점점 한심스러워 지는 것 같다. 「옛날에는 「수레를 들어라」 「등불을 올려라」고 말하던 것을 지금 사람들은 「들어올려라」 「켜올려라」고 한다.

何事も古き世のみぞ慕しき。今様はむげに賤しうこそ成行くめれ。

かの木の道の匠の作れる[うつくしき]器物も、古代の姿こそをかしと見ゆれ。

文[詞などぞ、昔の反古どもはいみじき。ただ言ふ]言葉も、くちをしうこそなりもて行くなれ。「いにしへ」は、「車もたげよ」[「火かかげよ」とこそ言ひしを、今様の人は、「もちあげよ」「かきあげよ」と言ふ。²¹⁾

14단과 마찬가지로 「古き世」, 「古代」, 「いにしへ」가 「今様」와 대비되며 역시 그리움, 동경의 시대로, 그리고 규범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23단, 24단에서도 그런 맥락이 이어진다. 또한 65단은,

요즘의 관(冠)은 옛날보다는 훨씬 높아졌다. 옛날 관 담는 통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끝을 이어서 지금 사용한다.

此頃の冠は昔よりは遙かに高くなりたるなり。古代の冠桶持ちたる人は、端を繼ぎて今は用ゐるなり。²²⁾

와 같이 관(冠)에 관한 옛날과 현재의 차이를 말하고 있으며, 과도한 것을 싫어하는 겐코의 눈에 「훨씬 높아지(遙かに高くなりたる)」고 눈에 더욱 띄게 된 현재의 관이 좋게 비치지 않았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마쓰모토 신스케(松本眞輔)씨는 「옛날(いにしへ)」의 구체상을 「정취있는 것」과 「검소한 것」이라 보고 있다.²³⁾ 검소함은 한거(閑居)라는 지향해야 하는 삶의 형태에 관한 맥락과 연결되어 꼭 과거상과 관련지을 수 있다고 만은 보지 않으나, 확실히 위의 14단과 22단은 옛날이 현재보다 더욱 정취 있다(あはれ、をかし)고 보고 있으며, 65단은 과거의 간소함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쓰레즈레구사』에는 많은 과거가 오히려 현재를 배경으로 그려져 있으며, 대비와 비교를 통해 과거는 현재의, 그리고 현재는 과거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문제는 지금과 대비되는 그리움의 대상과 규범으로서의 옛날의 범주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있다. 고미 후미히코(五味文彦)씨는 『쓰레즈레구사』에 등장하는 인물

의 실명이나 역사적 사건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을 통해, 기본적으로 9세기말부터 11세기에 걸친 시대, 즉 섭관(攝關)시대를 겐코가 가장 이상으로 삼고 중시하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원정기(院政期)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고토바(後鳥羽)상황²⁴⁾의 시대를 옛날 좋은 시대의 상징처럼 다루고 있으며, 죠큐(承久)의 난²⁵⁾ 이후의 고사가(後嵯峨)상황²⁶⁾ 시대를 고토바상황 시대를 잇는 좋은 시기로 자리매김 한다는 세세한 논증을 하고 있다.²⁷⁾ 그 다음 시대가 바로 겐코가 태어난 것으로 추측되는 13세기 후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쓰레즈레구사』에서 다루는 과거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옛날과 그가 기억하는 시절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하자면 섭관(攝關)시대인 9세기말부터 13세기가 포함되는 셈이 된다. 겐코가 말하는 ‘옛날’에는 섭관정치시대가 있었고, 원정기가 있었으며, 겐페이(源平)의 전쟁이 있었고, 무사세력에 의해 가마쿠라(鎌倉)막부가 성립되었으며, 가깝게는 몽골의 내습(來襲)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광범위한 4세기 간의 세월이 모두 규범과 이상으로서의 과거는 아니었으며, 협의로는 섭관시대와 고토바(後鳥羽)시대, 고사가(後嵯峨)시대가 좋았던 옛날, 혹은 모범이 되는 과거로 기억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3단에 「쇠퇴한 말세(衰へたる末の世)」²⁸⁾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겐코의 현재는 위에서 말한 이상적이던 몇 시기를 뺀, 어지럽고 불안한 동란의 세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세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겐페이(源平)의 전쟁을 비롯하여 지고지순해야 했던 천황이라는 존재까지 합세한 각 세력들간의 동란, 그리고 이러한 국내적 요소 외에도 몽골의 내습을 전후로 한 커다란 사회변동 상황은 「기억」에서 배제하고 싶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언급을 피했지만, 결국 현재의 좋지 못한 모습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암(暗)」의 측면으로 잔존하게 된 것이 아닐까? 여기에 겐코가 자신이, 혹은 자신이 사는 시대가 경험했던 대변동과 사건 및 정치적 혼돈양상에 관한 언급을 회피한 이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새 시대에 대한 겐코의 인식

(1) 철(鐵)에 대한 겐코의 인식

위에서는 상고취향을 담아낸 단들을 통해 과거에 대한 동경이 현재와의 명백한 대비에 의해서 부각된다는 점을 짚어보았다. 그런데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행간에

서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서를 읽어낼 수 있는 단들이 있다.

122단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사람의 재능은 서적에 정통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아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다음이 서도인데 전문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배워야 한다. 학문의 편의를 돕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의술을 배워야 한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남을 도우며 충효를 하는 데에도 의술이 없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활 쏘고 말 타는 것인데, 이는 육예(六藝)²⁹⁾에도 나오는 것이다.

-중략-

시가를 잘 짓고 관현에도 뛰어난 것은 유현(幽玄)의 길이다. 군신이 모두 이것을 중시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이런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점점 어리석은 짓처럼 보인다. 금이 훌륭한 것이라 해도 철이 (여러 모로) 이득이 많은 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人の才能は、文明かにして、聖の教へを知れるを第一とす。次には手書く事 むねとすることはなくとも、これを習ふべし。學問に頼りあらんためなり。次に、醫術を習ふべし。身を養ひ、人を助け、忠孝の勤めも、醫にあらずはあるべからず。次に、弓射、馬乗る事、六藝に出せり。

-中略-

詩歌に巧に、絲竹に妙なるは、幽玄の道、君臣是を重くすといへども、今の世には是をもちて世を治むること、黠愚かなるに似たり。金はすぐれたれども、鐵の益多きにしかざるがごとし。³⁰⁾

이 단은 겐코가 인간으로서 몸에 익혀야 할 재능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문(文)과 무(武), 그리고 의(醫)를 그 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 단은 주제면에서 1단의 내용에 비해 차이가 있다는 점, 중국 고전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 유교적 합리주의가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거론되곤 했다.³¹⁾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측면보다 후반부에서 언급하는 「철(鐵)」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유현(幽玄)의 예로 들고 있는 「시가(詩歌)」나 「관현(絲竹)」에 관해 깊은 조예를 보이던 겐코는 이미 그 유현의 도(道)를 잣대로 삼아 세상에 관여하려는 것이 「어리석은(愚か)」 일이라 말한다. 「지금 세상(今の世)」이 이미 예전처럼 군신(君臣)이 우미와 고상함, 즉 유현을 중시하던 시대와는 달라졌음을 인식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금(金)과 철(鐵)의 비유로 다시 풀이하고 있는 셈인데 시가와 관현과 같은 고상한 기술은

금처럼 귀하고 훌륭한 것이나 이미 이득(益)을 낳을 수 없는 것이기에 철만 못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겐코가 살던 시대 속에서 「철(くろがね)」이 가졌을 이미지에 관해 좀 더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위의 122단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이미 철이 쓸모가 많은 실용성의 대표로 금에 대비되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미 유현이라는 관념성은 철의 실용성에 미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인식이 확인된다.

그런데 철이 이 시대에 가졌을 또 하나의 이미지로서 몽골(蒙古)이라는 나라와 몽골내습(來襲)이라 일컬어지던 사건을 간과할 수 없다. 10세기에 시작하여 12, 3세기에 정점을 이루는 칭기스칸을 비롯한 초원의 「영웅시대」의 기동력은 철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철을 다루는 기술은 이미 대륙에 발달해 있었는데, 몽골 역시 철과 철을 다루는 기술에 의해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획득한 것이다. 철로 말굽을 보호하게 됨으로써 몽골의 기병들은 무서운 기세로 대륙을 석권할 수 있었다. 13세기의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초원의 유목민, 즉 몽골의 힘에 박차를 가한 것은 철의 힘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²⁾ 이렇게 철의 힘을 뒷받침으로 한 몽골의 두 번에 걸친 내습(1274~1281년)은 비록 격렬한 항전과 자연의 도움으로 물리쳤다고는 하나 공포와 위협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일본인들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겐코가 『쓰레즈레구사』를 집필한 시기는 그로부터 반세기 정도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다. 일본 전체가 몽골과 그 내습이라는 대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였으며, 겐코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든 철에는 실용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시대가 공유하던 대륙에 대한 공포를 담은 말굽과 무기로서의 철의 이미지 역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122단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해석할 때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철의 유용성만을 찬탄하는 언급이라기보다는 「철(鐵)」의 시대가 되었다는 시대의 변동에 관한 보다 복잡한 심경이 담긴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유현(幽玄)의 도(道)가 정말로 「어리석다」라든가 「이득이 많은(益多き)」 철이 금보다 뛰어나다는 액면의 의미 저변에는 어떤 종류의 역설과 시대에 대한 고소(苦笑)가 깔려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위의 본론 2에서 살펴본 상고취향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큰 부자(大福長者)의 등장에 관한 겐코의 인식

쓰레즈레구사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반영하는 내용에서 다음 217段的 내용도 주목된다. 특이한 인물, 즉 큰 부자(大福長者)라는 인물이 치부(致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한 내용이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단이 실제로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전달한 것인지 겐코의 창작인지는 가늠할 길이 없지만, 그 인용의 태도가 적극적이며 전달하는 내용이 명쾌하고 논리적이라는 점 등에서 겐코 자신도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느 부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져쳐두고 오로지 부(富)를 쌓아가야 한다. 가난해서는 살아가는 보람이 없다. 부유한 사람만을 사람으로 친다. 부를 쌓고자 생각하면, 당연히 우선 그 마음가짐을 수양해야 한다.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

ある大福長者の言はく、「人はよろづをさしをきて、ひたふるに徳を付くべきなり。貧しくしては、生ける甲斐なし。富るのみを人とす。徳を付かむと思はば、すべからく、先其心づかひを修行すべし。其心と云ふは、……」³³⁾

생략부호 뒤에는 치부를 위한 마음가짐을 다섯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중 「임금을 모시듯, 신을 대하듯, 두려워하고 소중히 여겨 자기 뜻에 따라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君のごとく、神のごとく、恐れ尊みて、従へ用ゐることなかれ。)」라는 부자의 말은 전신론(錢神論)³⁴⁾의 영향까지도 논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주목되는 점은 이 「어느 부자(ある大福長者)」라는 존재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막대한 전화(錢貨)의 소유자로서의 「부자(大福長者)」라는 말이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것은 문학사적으로 볼 때 에도(江戸)시대 이후의 일반적 특징인데, 그 출현은 이렇듯 이미 중세(中世)에 시작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의 권(卷)5 중 「수도천도(都遷)」 부분에서도 「이 구니쓰나(邦綱)경은 큰 부자이시므로, 대궐을 만들어내는 일은 어려울 것 없으나, 어찌 나라의 낭비나 백성들의 걱정이 없겠는가(この邦綱卿は大福長者にておはすれば、つくりいだされん事、左右に及ばねども、いかが國の費え、民のわづらひなかるべき。)」³⁵⁾라는 데에서도 이미 재화 및 물자가 풍부한 인물을 「큰 부자(大福長者)」로 일컬었음을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인물이 등장하고, 그런 인물이 치부에 관한 개인적 철학과 주관을 다룬 것은, 돈의 매력이 벌써 사람의 마음을 깊이 동요시킬 수 있었던 시대였음을

시사한다. 가난하면 사는 보람도 없고, 부자만을 인간취급하며, 돈은 하인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처럼, 신처럼 떠받들며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부자의 논리가 너무도 당당히 서술되어 있다. 부(富)를 「덕(德)」이라 하고 부유한 것을 「유덕(有德)」이라고 하는 견해³⁶⁾는 이미 널리 퍼져있었다. 그런 배경에는 변화된 일본중세의 경제사가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야스라오카(安良岡) 씨는 헤이안(平安)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농업생산력의 현저한 발전과 중앙귀족의 생활이 풍요로워졌음을 짚어내며, 전국적 산물의 집산지였던 교토(京都)와 교토상인들의 활발한 활약이 표면화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인, 즉 호상(豪商) 계급들이 운반의 편리함 등의 필요에 의해 중국 송나라의 동전을 들여오고, 그 화폐의 유통 확대에 의해 각종 금융기관이 출현하였고, 이를 본업으로 하는 상인계급이 출현하면서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 송(宋)·원(元)과의 무역에서도 큰 이익을 획득한 부상들이 속출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217단 후반부에 이어지는 겐코의 주관적 감상은 이런 대세 속에서 치부한 부자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³⁷⁾

아미노(網野)씨는 13세기말과 14세기의 구체적인 장원제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이 라이노(來納), 즉 일종의 연공징수원이 되어 돈을 귀족·승려들에게 융통하고 장원을 청부하며 연공을 거둬들이는 일이 빈번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미쿠라(鎌倉) 후기 연공을 돈으로 납부하는 전납(錢納)은 각지에서 시작되어 14세기 전반에는 전국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또한 시장의 시가가 변동이 많아 대관(代官)이나 상인들이 이를 이용해 부당한, 그러나 막대한 이익을 얻기도 했다는 사적 사실을 밝히고 있다.³⁸⁾ 이처럼 혼란스런 사회 속에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돈, 즉 부(富)라는 것이 중시되고 치부를 선호하게 되는 풍조, 일종의 배금주의(拜金主義)가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했으리라는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겐코도 『쓰레즈레구사』에서 배금주의를 비판하는 등 시대를 한탄하는 내용을 18단, 215단 등에서 우회적으로 -역시 과거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담아내기도 한다.

(의식주에) 약을 보태서 이 네 가지를 갖추지 못함을 가난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가 모자라지 않은 것을 풍부하다고 한다. 이 네 가지 이외의 것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을 사치라고 한다.

(藥を加へて、四のこと、求めえざるを貧しとす。此四缺けざるを富めりとす。此四の他を求營むを奢りとす。) <123段>³⁹⁾

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던 겐코에게 그(의식주+약)에 넘치는 물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나 사치는 경계할 것, 혹은 비난할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217단의 『큰 욕심은 무욕과 같다(大欲は無欲に似たり)』, 즉 부자의 돈에 대한 큰 욕심이 무욕의 마음과도 같다는 마지막 문장은 아스라오카씨의 말대로 부자에 대한 비판에 경도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진다. 부자가 재화, 즉 치부에 대해 보이는 당당하고 큰 욕심이, 사치 등을 경계하는 겐코에게 무욕(無慾)과 다름없이 여겨졌다는 점에서 비난의 어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217단 전반부에 펼쳐지는 부자의 논리가 명쾌하고 당당한 것에 비해 오히려 후반부는 그 진의를 파악하기 곤란한 애매함이 있는 점도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겐코의 주관적 감상문이 애매한 것은 앞에 펼쳐진 부자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음과 동시에 부자라는 새 시대의 새로운 입장의 인물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겐코가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 동향에 대해 언급하는 말을 작품 내에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 두드러지는 상고취향은 과거에 대한 동경취향만을 담아낸 것이 아니며 과거를 통해 현실을 그려내는 반사경 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 반사경을 통해 비추어진 겐코의 현실은 실로 여러 측면에 걸쳐진다. 대륙의 이미지를 포함하며 새 시대의 실용성이라는 힘을 얻게 된 철, 배금주의가 만연한 시기에 자신의 치부논리를 당당히 밝히는 부자는 실로 그 일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인으로서 유현을 존중하고 왕조적 분위기를 숭상하며 현세의 사치를 경계하던 겐코였지만, 그의 실제 생활에서 권력자에게 인정받기도 하는 등 누구보다도 현실을 유연하게 대처하며 살았던 모습 역시 그가 가진 인간적 측면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작품 한 쪽에서는 유교적 합리주의나 실용성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적극 권장하는 측면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며, 경제동향의 변동과 큰 부자의 존재와 그 경제논리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Ⅲ. 맺으며

『쓰레즈레구사』는 근세에 본격적인 향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고전의 대표작으로 읽혀왔다. 그러나 그 향수사에 있어서는 은자문학, 혹은 불교문학, 처세의 교훈서라는 측

면에서 많이 논해졌는데, 이는 근세 유학자들에 의한 고주석 등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 특히 남북조시대의 고다이코(後醍醐)천황을 마지막으로 천황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군사적·정치적 실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작품의 제1단에서 인간을 논함에 천황을 가장 먼저 꼽고 있는 겐코에게 이런 현실은 이상으로 그리던, 혹은 기억하던 과거에 대조되는 지양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연구사 속에서도 설이 분분한 『쓰레즈레구사』의 집필시기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동란의 현실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비판되거나 묘사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 때문에 『쓰레즈레구사』가 겐코(元弘)의 난 전에 집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히노 스케토모(日野資朝)를 다룬 단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이헤이키』에의 등장과 『엔타이라쿠』에서 소개하는 유직고실가(有職故實家)로서의 겐코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결코 겐코의 실생활이 권력의 난투장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보았다.

또한 그의 왕조취미라 일컬어지는 과거에 대한 동경이 동경심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조명하는데 어떤 효과를 주는지 짚어봄으로써 현실을 직접서술이 아닌 과거를 거울로 삼아 간접적으로 비추어 비판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쓰레즈레구사』가 어지러운 현실의 한복판에서 쓰여진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동란의 시대였던 만큼 많은 사건과 변란이 있었음에도 겐코는 의도적인 양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권력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입장, 문학인으로서 왕조시대의 와분(和文)을 써낸 귀족들과 중첩되는 시점을 가졌다는 점, 니쥬(二條)파의 맥을 잇는 보수적이며 전통적 성향을 가진 가인이었다는 등의 측면이 현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더라도 겐코는 현실을 떠날 수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따라서 그가 쓴 『쓰레즈레구사』에는 많은 단들의 행간에 시대의 모습이 완곡하고 우회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철(鐵)」이나 「큰 부자(大福長者)」가 시대상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도출해 보고자 했다. 많은 국내적 난과 몽골내습 등 각종 사회변동으로 인한 경제체제의 변화 속에서 외래, 즉 몽골로 대변할 수 있는 대륙에 대한 이미지와 치부에 대한 관심은 겐코의 현실을 반영하는 일단(一端)이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注】

- 1) 케논(Canon)은 정전(正典)·고전(古典)으로서 선별된 텍스트군이라는 의미이다. 즉 주요한 문학텍스트로 대표되는 것이며 반복해서 교과서나 선문집에 실리는 작품 및 작가를 의미한다. 보통 권위를 부여받은 텍스트, 해석과 모방할 가치가 있다고 널리 인정되는 텍스트를 말하는 것이다. 보다 협의의 의미로는 표준적 레퍼토리, 즉 개개 장르나 조직·기관 속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고 많이 읽히며 상연된 작품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확립되고 유력한 제도·기관에 의해 인정된 텍스트를 의미하기도 한다.
 ハルオ・シラネ(衣笠正晃 譯) 總説創造された古典—カノン形成のパラダイムと批評的展望 (『創造された古典』新曜社(東京), 1999. 4. 30), pp.13~18.
- 2) ハルオ・シラネ(衣笠正晃 譯) カリキュラムの歴史的變遷と競合するカノン(『創造された古典』新曜社(東京), 1999. 4. 30), pp.408~433 참조.
- 3) 유직(有職)은 예의작법에 통달한 사람이란 뜻에서 ‘공적 예의상 행사상의 법식’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고실(故實)은 옛 사실, 즉 고례(古例)를 의미하던 말이었으나 점차 한 단어처럼 쓰이게 되어 결국 ‘공가 및 무가의 의식상 행사상의 법식’이라는 의미로 자리잡게 되었다.
 (河鱈實英 『有職故實』- 日本文學の背景- 塙選書, pp.12~20)
- 4) 남북조시대의 격동기에 다조다이진(太政大臣)의 자리에까지 오른 정계의 중진 도인 긴카타(洞院公賢)의 일기. 엔교(延慶)4년(1311) 2월부터 엔분(延文)4년(1359) 12월까지의 한문일기기록. 기필시기 등은 불명확하지만, 유직고실(有職故實) 연구자료로서, 문학연구, 특히 가단사(歌壇史)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日本古典文學大辭典』岩波書店 ‘園太曆’항목 참조]
- 5) 橋純一校註 『徒然草』(日本古典選, 朝日新聞社; 東京, 1977. 5. 解説, pp.10~33参照)
- 6) 겐코(元弘)1(1331년)부터 2년간 고다이고천황(後醍醐天皇)을 중심으로 일어난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를 멸망시킨 내란으로 고다이고천황의 쿠데타 계획과 그 실패과정을 가리키기도 한다. 좌절로 끝난 쇼슈의 변(正中の變) 뒤에도 고다이고천황의 막부타도계획은 진행되었다. 쇼슈의 변이 비교적 온건한 처분으로 끝난 것, 황태자 구니요시천왕(邦良親王)의 병사로 인해 황통의 대립이 한층 격화된 것, 이쿠토(惡黨)의 행동이 격화되어 도쿠소(得宗)전제의 모순이 더욱 심각해 진 것 등이 고다이고천황이 막부타도 계획을 계속하게 된 배경이다.(『國史大辭典』(吉川弘文館), 『日本史辭典』(東京創元社) 참조)
- 7) 安良岡康作 『徒然草 全注釋 下卷』(上掲書 概説, pp.560~565参照)
- 8) 永積安明 『徒然草を讀む』岩波書店(東京), 1982. 4. pp.105~109.
- 9) 쇼슈(正中)원년(1324) 고다이고(後醍醐)천황이 호쥬 다카토키(北條高時)를 쳐서 정권회복을 꾀했지만 거병계획이 새나가 실패한 정변. 천황의 최측근이던 히노 스케토모(日野資朝)와 도시모토(俊基)는 체포되고 천황은 변명을 함으로써 화를 면하게 되지만, 고다이고천황은 이후 다시 막부타도계획을 진행하게 된다. [京大日本史辭典 編纂會編, 『新編 日本史辭典』東京創元社, 1990. 6. 5 ‘正中の變’항목 참조]
- 10) 유학(儒學)과 송학(宋學)에 능했으며 고다이고천황의 발탁을 받아 구로도(藏人)를 거쳐 삼위(三位) 슈나곤(中納言)에 이른다. 고다이고천황 측근에서 막부타도계획을 돕지만 쇼슈(正中)의 변으로 체포되어 사도(佐渡)로 유배당한다. 겐코(元弘)의 난이 일어나자 유배지에서 참형되었다. (1290~1332) [『國史大辭典』吉川弘文館 日野資朝 항목 참조]
- 11) 텍스트 p.231.
- 12) 텍스트 pp.232~233.
- 13) 이하 『다이헤이키』의 본문은 長谷川端 校註 『太平記』(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小學館, 1999)에 의한다.
- 14) 남북조시대의 무장. 겐코(元弘)의 난 때는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를 따라 활약하여 신임을

- 얻는다. 이후 막부재건과 함께 다카우지의 집사(執事)가 되어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된다.(? ~1351?)
 [『國史大辭典』, 吉川弘文館 ‘高師直’항목 참조]
- 15) 富倉徳次郎『卜部兼好』(吉川弘文館 1992. 10. 1), p.84의『園太曆』기사「天晴. 兼好法師入來. 武藏守師直狩衣以下事談之。」를 재인용.
 - 16) 永積安明 上同書, pp.112~114.
 - 17) 텍스트 p.91. 밑줄 필자. 이하 同.
 - 18) 와카(和歌)에 많이 읊어지는 명소
 - 19) 平安말기경 성립된 歌謠集. 後白河法皇 편저. 일부만 현존.
 - 20) 텍스트 p.92.
 - 21) 텍스트 p.100.
 - 22) 텍스트 p.142.
 - 23) 天皇재위는 1183~1198년. 1198년 양위하고 院政. 承久의 亂으로 隱岐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사망. 사후 각종 괴이한 일이 발생하여 怨靈을 위로하기 위해 五鳥羽院으로 追號.(1180년 生~1239년 崩御)
 - 24) 松本眞輔 「『徒然草』の古代憧憬と東國觀に關する一試論」 古典遺産 第47號, 1996. 2.
 - 25) 1221년 고토바상황(後鳥羽上皇)이 가마쿠라(鎌倉)막부의 토벌을 도모하다 패배하고 도리어 귀족 세력이 쇠퇴하고 무가세력이 강성하게 된 전란을 말한다.
 - 26) 천황으로서의 재위기간은 1242~1246년. 이후 고후카쿠사천황(後深草天皇)에게 양위한 후 원정(院政).(1220生~1272崩御)
 - 27) 五味文彦 『『徒然草』の歴史學』 朝日新聞社, 1997. 5. 25. pp.26~65.
 - 28) 텍스트 p.101.
 - 29) 중국 주(周)나라 시대에 반드시 배워야 할 과목이라 정한 여섯 기예, 즉 예(禮)·악(樂, 음악)·사(射, 궁술)·어(御, 기마술)·서(書)·수(數).
 - 30) 텍스트 p.197.
 - 31) 야스라오카 고사쿠(安良岡康作) 씨의『徒然草 全注釋』(角川書店, 1974. 8. 30), pp.515~519와 미에 스미토(三木紀人) 씨의『徒然草(三)』全譯注(講談社, 1995. 3. 20), pp.65~70 참조.
 - 32) 網野善彦 『蒙古襲來』小學館(東京), 2001. 1. 1. pp.160~161.
 - 33) 텍스트 p.286.
 - 34) 텍스트 p.287의 주16에서 구보타 준(久保田淳)씨는 진(晉)나라 노포(魯褒)의 전신론(錢神論) 등을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 35) 市古貞次 『平家物語一』(日本古典文學全集29) 小學館, 1973. 9. 30. p.358.
 - 36) 網野善彦, 上同書, pp.387~390.
 - 37) 安良岡康作 『徒然草 全注釋 下卷』角川書店(東京), 1974. 8. 30. pp.399~404.
 - 38) 網野善彦, 上同書, pp.384~390.
 - 39) 텍스트 p.197.

【參考文獻】

<주석서>

- 橘純一校註 『徒然草』(日本古典選) 朝日新聞社(東京), 1977. 5.
三木紀人 『徒然草 (一)~(四)』全譯注 講談社(東京), 1998. 6. 22.
安良岡康作 『徒然草 全注釋 上卷~下卷』 角川書店(東京), 1974. 8. 30.

<참고서적>

- 網野善彦 『蒙古襲來』小學館(東京), 2001. 1. 1.
河鱈實英 『有職故實』-日本文學の背景- 塙選書.
五味文彦 『『徒然草』の歴史學』朝日新聞社, 1997. 5. 25.
市古貞次 『平家物語一』(日本古典文學全集29), 小學館, 1973. 9. 30.
永積安明 『徒然草を読む』 岩波書店(東京), 1982. 4.
ハルオ・シラネ 鈴木登美 編 『創造された古典』 新曜社(東京), 1999. 4. 30.
松本眞輔 『『徒然草』の古代憧憬と東國觀に關する一試論』 『古典遺産』 第47號, 1996. 2.
京大日本史辭典編纂會 編 『日本史辭典』 東京創元社(東京), 1990. 6.
『國史大辭典』 吉川弘文館(東京).
『日本古典文學大辭典』 岩波書店(東京).

『徒然草』に見られる兼好の現實認識

嚴仁卿

『徒然草』が大衆性を得て古典として出版界で爆発的に歓迎されたのは、江戸時代になってからのことである。近世の古注釈書の大挙登場が、『徒然草』の解釈と理解に寄与したところは大きかったと言えるだろう。しかし、その影響で、作品の享受において、教訓書あるいは隠者文学として作品のイメージが固定化する傾向を見せたのは顧みるべき問題点を含んでいる。

しかし、『徒然草』の主題を無常の文学とみたり、あるいは処世の指針書とみる意見などは、全て作品のある一面だけを捉えたもので、『徒然草』の本質を貫いた主題とは言いがたいと思われる。それ以外にも『徒然草』には、有職故実に関する多くの段、人物を中心にした説話的な段をはじめ、周囲から伝え聞いた話、知り合いに関する逸話などには、迂廻と湾曲を経て兼好が生きていた「太平記の時代」がみられるからである。

現実を主導していた権力者の一人である高師直のところに有職故実家として出入りしたり、また土地売買の文書まで残している兼好は、尚古趣向に耽けているようで、様々な現実の事件に対しては沈黙しようとはしたものの、現実から離れることも、現実を反映せずにい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

また本稿では、研究史の中で未だ定かではない『徒然草』の執筆時期に関する論に対して、簡単に概観してみた。そして、彼の王朝趣味と言われる過去に対する憧れが、憧憬の心情だけではなく、実際の現実の照明にどのような効果を上げているかを考察してみた。それは兼好が、自らの現実を過去と比較してどう受け入れ、どう批判したのか、また、作者の色々な経験によって記憶される過去をどう繕っているのかを明らかにするためである。動乱の時期だけあって、多くの事件と変乱があったにも係わらず、兼好は意図的とも思われるような態度で直接それに対して言及していない。しかし『徒然草』には多くの段に時代の姿が投影されており、本稿では特に、「鉄」や「大福長者」などがどのような意味を孕んでいるかを導出してみた。様々な国内的な戦乱や蒙古襲来など各種の社会変動による経済体制の変化の中で、外来に対するイメージと致富に対する関心は、兼好の現実を反映する一端であると把握できるだろう。